

손해보험회사 홍보팀장 간담회 개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 6월 26일 협회 6층 회의실에서 협회 사원사인 손해보험회사 홍보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회 업무 소개에 이어, 중앙일보 민병관 산업부장을 초청, 언론보도의 원칙, 참여정부의 언론동향 등에 대한 강의시간이 마련되어 기자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홍보팀장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제5회 불조심 어린이마당」행사, 206개 초등학교 7,472명 참가 신청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손해보험회사의 후원을 받아, 어린이들이 어릴 적부터 화재안전의식을 가지고 불조심 생활화를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된 '제5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신청이 지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에 총 206개 학교(7,472명)에서 참가 신청하였다. 초등학교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는 협회에서 보내주는 어린이 학습교재인 「불조심 길라잡이」를 10월 한 달 동안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11월 10일과 11일중 택일하여 평가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LNG, LPG 선박용 극저온 벨로우즈 익스펜션 조인트 개발에 대한 기술연구용역 계약 체결

방재시험연구원은 8월 13일 산업자원부의 2003년도 공통핵심기술개발 사업인 'LNG, LPG 선박용 극저온 벨로우즈 익스펜션 조인트 기술개발 연구'의 계약을 연구 주관기관인 (주)세원공업과 체결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 및 각 선급규정에 의한 평가를 통과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이번 연구는 2003년 8월 1일부터 2년간 수행될 예정이다. 최근 국내 조선소의 LNG, LPG운반선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 극저온 벨로우즈 익스펜션 조인트의 국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저온 벨로우즈 익스펜션 조인트가 국내에서 개발되면 외화절감은 물론 수입과정에서 소요되는 자재수급 기간을 단축하여 선박건조 일정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운반용 선박뿐만 아니라 육상 플랜트와 해상 플랜트의 LNG,

LPG 이송라인에도 사용이 가능하여 조선사업 및 육상용 플랜트 사업분야에서 해외 수출로 인한 외화 획득을 기대할 수 있다.

2002 안전점검 결과분석 발간



한국화재보험협회는 2002. 4. 1부터 2003. 3. 31까지 전국의 11층 이상 건물 및 3,000㎡이상의 공장 등 특수건물 13개 업종, 14,128건에 대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분석한

「2002 안전점검 결과분석」 자료를 발간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특수건물 할인율」이 증가하는 건물(34.1%)이 감소하는 건물(26.9%)보다 7.2%P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수건물에서의 화재 안전 관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수건물 할인율」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거,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정기 안전점검 시 화재안전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발화빈도, 소손율, 관리시스템의 신뢰도, 화기사용시설 등의 위험도, 공정위험도,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여 산출하는 특별요율이다.

NFPA 태평양지역 담당이사 내방



미국 방화협회(NFPA) 태평양지역 담당이사 Jeff R. Godfredson이 지난 7월 11일 업무 협의차 우리 협회를 방

문하였다.

Godfredson 이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박정훈 이사는 "NFPA와 우리 협회는 오래 전부터 '업무협력 협정'을 맺고 긴밀한 업무 협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Godfredson 이사는 "NFPA와 한국화재보험협회(KFPA)가 협력의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양 기관의 유대강화를 위해 자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NFPA의 James M. Shannon 회장은 8월 12일자 박정훈 이사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KFPA가 NFPA 코드 및 스탠더드를 한국어로 번역, 발간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서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